

온오프라인 인권존중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성별에 의해 조절된 인권의식의 매개효과*

전예빈* · 김순규**

I 알기 쉬운 개요

청소년이 주변 환경으로부터 인권을 존중받는 경험은 이들의 발달은 물론이고 타인과의 관계형성에도 도움을 준다. 또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인식, 존중하는 역량인 인권의식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편, 청소년의 주변 환경을 살펴볼 때는 이들이 누구보다 온라인에 익숙한 세대임을 고려하여 온오프라인 영역을 모두 살펴봐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런 배경에서 온오프라인에서 청소년의 인권존중경험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 관계에서 인권의식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또한, 인권관련 상황에서 다르게 보고되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였다. 분석결과, 온오프라인 인권존중 경험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권의식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하였으며, 성별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청소년의 인권이 존중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학교생활적응과 관련해 인권의식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성별에 따라 인권 의식 발달을 위한 개입방향이 달라져야 함을 지적하였다.

* 이 연구는 제 1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 및 보완한 논문임

**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교신저자, soongyu@jbnu.ac.kr

투 고 일 / 2022. 6. 6.

심 사 일 / 2022. 8. 5.

심사완료일 / 2022. 8. 18.

DOI/10.14816/sky.2022.33.4.89

I 초록

본 연구에서는 온오프라인 인권존중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를 성별에 의해 조절된 인권의식이 매개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2019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4,988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SPSS 21.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PROCESS macro Model 4를 활용하여 온오프라인의 인권존중경험과 학교적응간의 관계에서 인권의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PROCESS macro Model 7을 활용하여 온오프라인의 인권존중경험이 성별에 의해 조절된 인권의식을 매개로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온오프라인 인권존중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온오프라인 인권존중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인권의식이 부분매개하고 있었으며, 인권의식의 증진을 통해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온오프라인 인권존중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성별에 의해 조절된 인권의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인권의식 수준은 여자청소년이 높으나 남자청소년이 효과 크기는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권존중환경과 인권의식 발달을 위한 논의 및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해 청소년이 실제 삶에서 인권을 존중받는 경험이 중요하며, 그 과정에서 인권의식을 매개로 학교생활적응이라는 긍정적 발달산물이 형성되는 과정을 확인하고, 성별에 따른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청소년, 온오프라인 인권존중, 인권의식, 학교생활적응, 조절된 매개효과

I. 서 론

1989년 UN은 아동권리협약을 채택했고, 우리나라도 1991년 협약에 비준하면서 국내외적으로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의 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2010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며 학교에서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최형찬, 2011), 이후 ‘아동·청소년 의회 구성에 대한 조례’와 같이 의사결정권 보장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역단위 차원에서 노력이 전개되었다(이윤주, 정상우, 2018). 하지만 ‘2019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4명 중 1명이 인권침해 피해 경험이 있고, 가해 경험도 5명 중 1명인 것으로 보고되어 제도적 마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수의 청소년이 인권침해 피해자, 가해자가 되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인권보장이 잘 되고 있는가를 판단할 때 법이나 제도로 중요하지만 개인이 실제 삶에서 얼마나 인권을 존중받고 있는지(이민주, 정익중, 양옥경, 배은경, 2018), 특히, 자신을 둘러싼 주변 환경으로부터 얼마나 인권을 존중받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국가 간 비교연구에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인식은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다방면의 권리 제한으로 나타난 것으로 예측된다(Kosher & Ben-Arieh, 2017). 예컨대, 일반적으로 인권에 대한 개념 습득이 일상적 권리 존중에서 비롯된다고 할 때(이민주 외, 2018) 청소년들은 차별이나 폭력에 노출되는 비율이 높아지는 등 가정이나 학교, 지역사회에서 인권을 보장받는 긍정적 경험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서울특별시, 2020). 그러나 주변 환경으로부터 인권을 보장받는 경험은 청소년 자신의 긍정적 발달 뿐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고, 긍정적 관계를 쌓는 데 도움을 주며(현안나, 2016),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증진시켜(김영신, 박가나, 2014) 인권침해의 가해자가 되는 것 또한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청소년이 주변 환경으로부터 인권과 관련해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에게 영향을 주는 주변 환경으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환경을 모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청소년은 다른 세대보다 온라인에 익숙한 세대로(Dennison, Morrison, Conway & Yardley, 2013), 익명성을 통해 청소년임이 드러나지 않아 이로 인해 차별받는 것은 덜 하지만(Suler, 2008) 유해정보 노출, 사생활 침해 등 인권침해(Moreno, Binger, Minich, Zhao & Eickhoff, 2022)와 같은 부정적 인권상황을 동시에 경험함을 고려해야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인권을 존중받는 경험은 인권의식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며, 이를 통해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할 줄 아는 태도로 발현되어 청소년기 대표적인 발달산물인 학교생활적응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구신실, 박재국, 김민경, 2018).

학교생활적응은 학업성취 수준과 자신감을 높여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한 책임감을 개발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에게 중요한 발달 과업이며(김성현, 백현옥, 2021), 특히 중고등

학생은 초등학생과 달리 자아 확립과 같은 높은 수준의 발달과업을 통해 사회적응력을 습득해야 하므로 학교생활적응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선행연구들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주변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이정은, 조미형, 2007), 주로 가정환경(김경하, 2015)과 학교환경(박종효, 2013)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변화하는 청소년의 주변 환경을 폭넓게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즉, 그동안 연구들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과 관련하여 가정환경과 학교환경처럼 물리적으로 구분된 체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으므로 온라인, 오프라인처럼 다른 차원에서 경험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 강조한 것처럼 다른 세대보다 청소년은 오프라인과 더불어 온라인을 통해 가정, 또래, 학교 및 지역사회 등 다양한 환경체계들과 더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체계를 포괄하여 살펴볼 수 있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에서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요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권존중의 경험은 다양한 체계에서 경험되는 공통의 특성으로 인권침해 피해가 학교생활부적응을 증가시키고(선미숙, 2017), 반대로 긍정적인 인권존중 경험이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차유미, 차성현, 2019)를 통해 온오프라인 상에서 경험한 청소년의 인권존중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 2021년 발표된 국가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세대의 인권의식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성별과 관련된 갈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결과들을 발표하고 있다. 이는 청년기 이전 청소년의 인권의식을 살펴볼 때도 성별을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청소년 인권의식과 관련된 연구에서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인권의식이 높게 나타나며(박봉규, 2011), 인권과 관련한 경험과 인권의식의 관계에서 남자청소년이 더 높은 수준을 보인다는 연구가 보고되었다(현안나, 2016; 김현경, 김신영, 2015). 또한, 이러한 성별 변수는 학교생활적응에서도 다른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는데, 연구 환경에 따라 남성이 더 높기도,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나기도 하는 등 성별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결과가 일관되지 않아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황은희, 강지숙, 2012).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인권존중경험이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인권의식이 다시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성별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리하면,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그동안 간과되어 온 청소년이 온오프라인 일상에서 인식하는 인권존중을 통해 실제 삶에서의 인권보장을 살펴보고, 이러한 인권존중경험이 인권의식을 매개로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성별에 의한 인권의식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성인기 이전 청소년기에도 성별에 따른 인권의식의 차이와 학교생활적응까지의 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인권존중경험과 인권의식

인권은 인간이라면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인 도덕적 권리로, 인권의 범위는 생존권에서부터 사회권, 참여권까지 점차 확장되어왔다. 하지만 2021년 국가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은 대한민국의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보고했고, 빈곤층이나 장애인, 학력에 따른 차별도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47.4%로 나타나 현대사회에서 인권의 침해로부터 보호되고 인권이 제대로 존중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던져진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법과 제도가 우선적으로 제정되는 것이 필수적이며, 더불어 사회구조적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조효제, 2015). 그리고 이러한 사회구조적 변화는 자신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인권존중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어떤 것이 인권침해이고 인권의식이 결여된 것인가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Farmer, 2003). 이는 청소년이 현재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그리고 보다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함을 돕는 측면에서 인권침해 여부를 인식할 수 있는 인권의식이 더욱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김자영, 2011). 그리고 이러한 인권의식은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는 경험으로부터 형성되는데 이를 통해 모든 사람의 인권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구정화, 2016). 또한, 인권의식은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함을 익히는 것으로 이를 통해 청소년기 대표적 발달 산물인 학교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전혜숙, 2021) 청소년의 인권의식을 살펴보는 것은 학교생활적응을 위한 보호요인으로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일상생활이 되어버린 청소년의 온라인 환경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이들은 온라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고, 소통 및 정보 습득, 놀이 등 오프라인 삶에서 이루어진 활동들을 동일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삶에서 온라인은 오프라인 환경만큼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Burns & Gottschalk, 2020). 즉, 오프라인뿐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인권과 관련하여 존중받는 경험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공식적 국제기구에서 온오프라인에서 청소년의 인권보장을 위한 여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OECD는 아동이 접하는 디지털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유해정보 노출 사생활 침해 인터넷 중독 등과 같은 위험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2012 온라인 아동 보호 권고안’을 개정하며 아동이 온라인에서 권한을 부여받고, 인권을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

해야 함을 권고하였다. 또한, UN에서도 2021년 ‘디지털 환경 관련 아동 권리에 대한 일반 논평 제25호’를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네 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아동을 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당사자인 아동의 견해를 존중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온라인 환경에 대한 논의나 당사자의 참여에 대한 논의는 미진한 상황이다.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학교환경에서 인권보장 개선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학생 참여에 있어 실질적인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박환보, 2021) 기존의 학생인권이나 아동·청소년의 인권 연구에서도 학교폭력이나 차별과 같은 부정적 인권 침해사례나 학생인권조례와 같은 제도적 장치만을 한정하여 검토되었다(구슬이, 정익중, 2021). 즉,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오프라인 환경을 중심으로 인권침해에 대한 논의가 대부분이고 온라인 환경을 고려하거나 당사자인 학생과 관련한 인권존중의 보호요인을 탐색한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제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주변환경에서 얼마나 인권존중의 경험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청소년은 실생활에서의 인권존중경험을 통해 인권에 대한 개념을 습득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이민주 외, 2018). 또한, 청소년의 인권보장수준을 판단할 때는 법적인 제도의 유무보다는 일상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지각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구정화, 2016)이 되기 때문에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긍정적인 의식의 변화, 인권 의식의 성장이 중요하다.

여기서 인권의식은 자신을 포함한 사회구성원에게 부여된 인권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존중하며,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수호하려는 태도를 말한다(김자영, 2011). 인권의식의 발달을 통해 청소년은 스스로의 인권을 자각함과 동시에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유성렬, 김신영, 2013). 이렇듯 인권의식은 청소년 스스로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인으로, 청소년의 인권의식의 중요성을 살펴본 연구들도 진행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인권의식을 갖는 것은 민주적 의사소통능력과 함께 주체적인 판단능력을 가지는 것이고, 청소년 인권의식의 변화가 사회변화의 근본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정건희, 2009). 일상생활 환경으로부터 발달한 인권의식을 살펴본 김상미와 남진열(2014)의 연구에서도 학교폭력의 공포화, 집단화, 지속화 등에 대해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을 자신과 똑같이 인권을 가진 존재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청소년의 인권의식 함양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인권의식은 이들이 인권의 침해를 받지 않는 것과 동시에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인권의식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인권교육의 방향을 탐색한 박봉규(2011)의 연구에서는 인권의식의 구성요인으로 인권에 대한 인식과 의무성 인식이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왔다고 보고한다. 이는 대개 주관적 관점에 따른 의식의 형성이 여성이

남성보다 더 정교하게 발달된다는 Fivush와 Zaman(2014)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 반면에 인권존중환경이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현안나(2016)의 연구에서는 인권존중적인 학교환경이 인권의식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남자청소년집단에서 유의미했으며, 여자청소년의 경우 자아존중감을 통해서만 인권의식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한다. 그리고 인권의식과 유사한 개념으로 시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인권 친화적 학교환경의 영향력을 살펴본 김현경과 김신영(2015)의 연구에서는 성별이 통제변인으로써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수준의 시민의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러한 차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2021년 국가인권실태조사에서 청년세대의 인권의식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는 발표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매일경제, 2022-04-03). 이는 집단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기로 이행되기 전인 청소년기 인권의식에 대해서도 성별에 따라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즉, 인권존중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인권의식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경험한 지각한 인권존중과 이를 통해 형성된 인권의식을 중심으로 그 경로에서 성별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인권존중 경험의 장소를 오프라인에 국한하지 않고, 온라인을 포함함으로써 포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인권요인

청소년은 학령기에 이르러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면서 주변과 관계하며 신체적, 인지적, 심리적인 변화를 겪는다(Wentzel & Battle, 2001). 이러한 과정에서 청소년이 성공적으로 학교생활에서 적응하는 것은 개인의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이며 특히, 교실에서의 만족스러운 수행과 또래집단과의 교류, 적절한 성취에서 오는 동기는 대표적인 발달과제 중 하나이다(문은식, 2003). 여기서 학교생활적응은 청소년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여러 상황이나 관계에 대해 스스로 조절할 수 있고, 또래집단이나 학교 내 성인들과의 관계 등 학교생활 전반에 만족스러운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의미한다(문은식, 김충희, 2002; 김영춘, 정민숙, 2012). 따라서 학교생활에 원만히 적응하는 청소년은 바람직한 인격과 높은 자존감을 습득하며, 이를 토대로 올바른 사회규범과 가치를 학습함으로써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정미영, 문혁준, 2007). 또한, 아동의 자신감을 높여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한 책임감을 개발해줄 수 있다(김성현, 백현옥, 2021). 동시에, 학교에서 올바른 태도와 행동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주위환경이 필수적이고, 이는 아동이 학교생활적응 수준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성공적인 학업성취로 이끌 수 있도록 해준다(이정은, 조미형, 2007). 이러

한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가정 및 사회요인과 심리정서적요인이 제시되어왔다. 먼저, 가정요인을 살펴보면 이명순과 김종운(2014)은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공감능력과 자아탄력성을 통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가족과 부모의 갈등을 아동이 인지하였을 때는 학교부적응 요인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병규, 오주리, 2015; 김원희, 이동훈, 2010). 그리고 심리정서적 요인을 살펴보면, 김기순, 신선순(2011)은 청소년이 지각한 스트레스 중에서도 학업과 또래관계에서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 또한, 자신에 대한 자아개념과 자아정체성,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김현주, 홍상항, 2015). 이러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전통적 요인들은 가정과 학교의 지지집단과의 관계, 심리정서적 요인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그 과정에서 겪는 인권과 관련한 경험이라는 환경요인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를 지닌다. 인권환경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주변인과 관계가 얼마나 잘 형성되어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그들과 소통하면서 경험하는 인권경험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청소년은 인권존중을 통해 타인을 차별하지 않아야 함을 익히고(김준범, 이진석, 2020),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Amnesty International, 2013) 결국에는 학교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권관련요인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친 영향을 다룬 연구를 살펴보면, 선미숙(2017)은 학교에서의 인권침해 경험이 초·중·고 전체 학교급에서 학교생활 부적응이 발생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차별 경험 또한 학생들의 범법 비행 발생 확률을 높인다고 보고한다. 이는 자신의 인권을 존중받지 못한 경험, 결국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게 되는 악순환이 이루어질 것임을 추측하게 한다. 또한, 유지희와 엄명용(2020)의 연구에서는 온라인상에서의 사이버불링피해경험이 학교부적응행동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한다. 청소년의 인권존중과 학교적응의 관계를 살펴본 차유미와 차성현(2019)의 연구에서는 인권존중경험이 많은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학교생활적응을 잘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인권존중경험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민주 외(2018)는 부모와 학교로부터 존중받은 경험을 통해 학생들이 규칙을 더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돕고, 학교 내에서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학교생활적응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한다. 또한, Griffiths, Sharkey and Furlong(2009)는 다양한 인권 중 참여권이 존중되는 학교환경일수록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도 보고한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제시한 의견이 존중받고, 참여를 통해 변화하는 환경을 목격하면서 부정적인 정서, 사회적 행동이 감소하며 이에 따라 학교에 충실하게 되면서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높아진다고 설명한다.

또한, 학교생활적응은 인권존중경험을 통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이를 통해 성장한 인권의식으로부터도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인권의식은 교내외에서 발생하는 비인권적인 상황에 적절한 판단과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폭력과 같은 학교부적응 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된다(최영규, 2021). 학교폭력을 조절변인으로 두고 인권의식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를 살펴본 전해숙(2021)의 연구에서도 인권의식 수준의 향상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함양한 것으로 학교에서의 대인관계 및 학업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영향은 청소년이 성장하는 과정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인권의식의 하나로 시민의식을 살펴본 김현주(2022)의 연구에서는 시민의식이 높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높은 수준으로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특정한 상황과 관련하여 인권이 보호되고 있지 않은 상황을 알아채는 역량으로 인권의식을 바라보는 은지용(2002)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자신이 처한 비인권적 상황을 인식하고, 발산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학교생활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한다. 또한, 지역사회의 주요한 아동보호체계 중 하나인 지역아동센터 환경에서 진행된 연구(오세현, 김담이, 2022; 이진선, 강영숙, 오종철, 박시균, 2019)에서도 인권의식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학교생활적응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온오프라인에서의 인권 존중과 인권의식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수준을 높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의 인권의식을 분석한 이쌍철(2019)의 연구에서는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인권보호정도가 낮았고, 특히 중등학교의 경우 권리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권보호풍토가 중등학교에서 부정적으로 나타남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피아제의 인지이론에 따르면 만 12세 이상에 해당하는 중고등학생에 이르러서야 의식이나 태도와 같은 추상적인 생각을 보다 체계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되므로(Piaget, J. 2003) 주관적으로 측정되는 인권존중과 인권의식에 대한 영향을 명확히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권과 관련한 요인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청소년이 가진 인구사회학적 요인인 성별, 학교급, 학업성적, 지역규모의 영향력을 살펴보고, 추가적으로 그들의 가정요인인 경제수준, 부모의 학력(김상미, 남진열, 2011; 송진영, 박민자, 2015; 이민주 외, 2018)을 투입하여 주요변수 간 영향력을 명확히 검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위와 같은 인구사회학적 및 가정요인을 투입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2019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전체 응답자 9,060명 중 중학교, 고등학교 청소년 중 결측값을 제거한 4,988명의 응답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청소년기 온오프라인에서의 인권존중경험이 인권의식을 매개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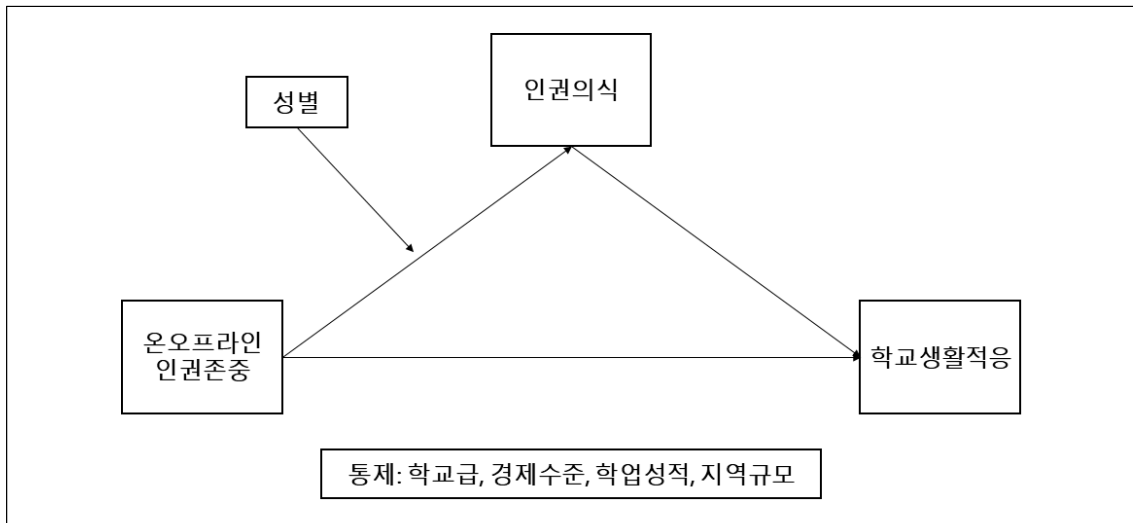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2. 측정도구

1) 독립변수: 온오프라인의 인권존중경험

인권존중경험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인권존중을 함께 살펴보기 위해 우리나라 전체, 온라인은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공간에서 “나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라는 2문항에 대하여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1점부터, ‘매우 존중받는다.’ 5점까지의 리커트형 척도를 사용하였다. 또한 두 문항의 표준편차 범위(.705~.719)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분석 시 다른 주요 변수와의 호응을 위해 평균값을 사용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인권존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두 문항의 내적 신뢰도는 Cronbach α =.790.으로 나타났다.

2) 종속변수: 학교생활적응

종속변수는 학교생활적응으로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의 문항으로써 김영춘과 정민숙(2012)의 연구에서 활용한 변수를 참고하였으며 ‘학교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 준다’, ‘선생님은 학생들은 존중한다’,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와 같이 학생, 교사, 학급생활 등의 관계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포함함으로써 학교생활적응 수준을 측정하고자 한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 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세 문항의 표준편차 범위(.592~.792)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분석 시 다른 주요 변수와의 호응을 위해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또한,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내적 신뢰도는 본 연구에서 Cronbach α =.773으로 나타났다.

3) 매개변수: 인권의식

매개변수는 인권의식으로서 이는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의 문항으로써 송혁, 황동진과 김사현(2015)의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를 참고하였다. ‘청소년은 아직 어려서 결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등 총 7개의 인권상황을 제시하고 4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7개 문항의 표준편차 범위(.540~.717)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분석 시 다른 주요 변수와의 호응을 위해 평균값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권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내적 신뢰도는 본 연구에서 Cronbach α =.838로 나타났다.

4) 조절변수: 성별

본 연구의 조절변수는 청소년의 성별이다. 분석에 사용된 성별 변수는 여자(0), 남성(1)으로 조작화하여 이분변수로 투입하였다.

5) 통제변수

본 연구의 통제변수는 학교급의 경우 인문계 고등학교를 기준변수로(0) 하여 중학교, 특성화고 고등학교를 가변수화 하여 투입하였다. 주관적 경제수준과 주관적 학업성적의 경우 하(1), 중(2), 상(3)으로, 아동이 응답한 부모의 학력은 고졸 이하(1), 대졸(2), 대학원 이상(3)으로, 지역규모의 경우 중소도시를 기준변수(0)로 읍면지역, 대도시를 가변수화 하여 투입하였다.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21과 PROCESS macro for SPSS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했다. 첫째, 분석 표본 및 주요 변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술통계 분석을 수행했다. 둘째, PROCESS macro Model 4를 활용하여 온오프라인의 인권존중경험이 인권의식을 매개로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직접 및 간접 영향을 분석하였다. 셋째, PROCESS macro Model 7을 활용하여 온오프라인의 인권존중경험이 인권의식을 매개로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의해 조절되는가를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다음 표 1은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한 빈도분석 결과이다.

표 1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여자	2,497	50.1	경제수준	상	2,669	53.5
	남자	2,491	49.9		중	1,809	36.3
학교급	중학교	2,050	41.1		하	508	10.2
	일반계고	2,533	50.8	지역규모	대도시	2,091	41.9
	특성화계고	405	8.1		중소도시	2,232	44.7
학년	중학교 1학년	623	12.5		읍면지역	665	13.3
	중학교 2학년	666	13.4	부학력	고등학교 이하	1,552	31.1
	중학교 3학년	761	15.3		대학교	2,869	57.5
	고등학교 1학년	948	19.0		대학원 이상	567	11.4
	고등학교 2학년	958	19.2	모학력	고등학교 이하	1,794	36.0
	고등학교 3학년	1,032	20.7		대학교	2,876	57.7
학업성적	상	1,512	30.3		대학원 이상	318	6.4
	중	2,094	42.0				
	하	1,382	27.7				

먼저, 성별은 남성 2,491명(49.9%), 여성 2,497명(50.1%), 학교급의 경우에는 중학교 2,050명(41.1%), 일반고 2,533명(50.8%), 특성화고 405명(8.1%)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의 경우 중1 623명(12.5%), 중2 666명(13.4%), 중3 761명(15.3%), 고1 948명(19%), 고2

958명(19.2%), 고3 1,032명(20.7%)이 응답했다. 학업성적은 ‘중’ 2,094명(42%), ‘하’ 1,382명(27.7%), ‘상’ 1,512명(30.3%)의 순이었고, 경제수준은 ‘상’ 2,669명(53.5%), ‘중’ 1,809명(36.3%), ‘하’ 508명(10.2%)의 순이었다. 지역규모는 중소도시 2,232명(44.7%), 대도시 2,091명(41.9%), 읍면지역 665명(13.3%)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 학력은 대학교 2,869명(57.5%), 고등학교 이하 1,552명(31.1%), 대학원 이상 567명(11.4%), 모 학력은 대학교 2,876명(57.7%), 고등학교 이하 1,794명(36%), 대학원 이상 318명(6.4%)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주요변수의 특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변수와 통제변수의 특성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각 변수들의 왜도 절대값이 2를, 첨도 절대값이 7을 넘지 않아 정규분포의 형태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통제변수 중, 학년과 학교급의 상관계수가 .872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주요변수와는 높은 상관을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그대로 사용하였다. 또한, 다중공선성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VIF(분산팽창지수) 값을 확인한 결과, 1.02~4.31 사이의 값으로 나타났으며, 상관계수들의 값도 0.6 이하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의 주요변수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2

주요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및 기술통계 분석

	인권존중 경험	인권 의식	학교생활 적응	성별	학년	학교급	경제 수준	학업 성적	지역 규모	부학력	모학력
인권존중경험	1										
인권의식	.151**	1									
학교생활적응	.405**	.263**	1								
성별	.072**	-.156**	.082**	1							
학년	-.140**	-.020	-.079**	-.079**	1						
학교급	-.106**	.001	-.055**	-.006	.872**	1					
경제수준	.130**	.018	.142**	.071**	-.139**	-.147**	1				
학업성적	.089**	.068**	.191**	.078**	-.158**	-.168**	.214**	1			
지역규모	.018	.047***	.027	-.053**	.013	-.008	.036*	.026	1		
부학력	.047***	.029*	.070**	.027	-.072**	-.098**	.215**	.158**	.126**	1	
모학력	.035*	.023	.062**	.050**	-.126**	-.139**	.195**	.150**	.125**	.580**	1
평균(SE)	2.921 (0.621)	3.248 (0.385)	3.149 (0.539)	0.501 (0.500)	3.811 (1.671)	1.589 (0.492)	2.433 (0.670)	2.026 (0.761)	2.286 (0.686)	1.803 (0.621)	1.704 (0.580)
왜도	-0.351	-1.595	-0.225	-0.002	-0.248	-0.362	-0.771	-0.044	-0.437	0.162	0.145
첨도	0.591	6.435	0.183	-2.001	-1.152	-1.870	-0.532	-1.274	-0.850	-0.556	-0.583
Min	1	1	1	0	1	1	1	1	1	1	1
Max	4	4	4	1	6	2	3	3	3	3	3

* $p < .05$, ** $p < .01$, *** $p < .001$

3. 인권존중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다음 표 3에 PROCESS macro Model 4에서 전체 효과 선택 사항을 통해 온오프라인 인권존중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인권존중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B=.332, p<.001$). 통제변수 중에서는 성별, 학교급, 경제수준, 학업성적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에 비해 남성의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높으며($B=.040, p<.01$), 인문계고에 비해 전문계고($B=-.058, p<.05$)와 중학교($B=-.063, p<.05$)의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낮았다. 그리고 경제수준이 높을수록($B=.045, p<.001$), 학업성적이 높을수록($B=.102, p<.001$)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온오프라인 인권존중경험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구분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i>t</i>	
		<i>B</i>	표준오차	β		
독립	온오프라인 인권존중		.332	.011	.382	29.426***
통제	성별(남)		.040	.014	.037	2.833**
	학년		-.011	.009	-.034	-1.275
	학교급	전문계고	-.058	.026	-.029	-2.200*
		중학교	-.063	.029	-.057	-2.156*
	경제수준		.045	.011	.056	4.146***
	학업성적		.102	.009	.144	10.793***
	부학력		.009	.014	.010	.624
	모학력		.006	.015	.006	.384
	지역규모	읍면지역	-.027	.022	-.017	-1.243
대도시		.005	.015	.004	.320	
상수항			1.891	.064	-	29.390***
R ²			.195			
Model Fits			109.423***			

* $p<.05$, ** $p<.01$, *** $p<.001$

4. 인권의식의 매개효과

다음 표 4는 PROCESS macro Model 4를 활용하여 온오프라인 인권존중이 인권의식을 매개로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이다. Model 4는 두 단계의 회귀분석을 수행하게 되는데, 표 4의 1단계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통제 및 독립변수를 포함한 후 매개변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실행된 회귀분석의 결과, 온오프라인 인권존중 수준이 인권의식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151, p<.001$). 그리고 성별의 경우 여성에 비해 남성의 인권의식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181, p<.001$). 또한, 표 4의 2단계

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온오프라인의 인권존중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개변수인 인권의식을 포함한 뒤에도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beta=.350$, $p<.001$). 그리고 온오프라인 인권존중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표준화계수(β)의 변화를 통해 살펴보면, 앞선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인권존중의 영향력이 .382였고, 표 4에서는 0.305로 감소하여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분매개효과와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온오프라인 인권존중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인권의식의 매개효과는 .0227이었으며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즉, 온오프라인에서의 인권존중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인권의식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표 4

온오프라인 인권존중경험이 인권의식을 매개로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구분			1단계(종속변수: 인권의식)			2단계(종속변수: 학교생활적응)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i>t</i>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i>t</i>
독립	온오프라인 인권존중		0.094 (0.009)	0.151	10.778***	0.305 (0.011)	0.350	27.379***
매개	인권의식					0.296 (0.018)	0.211	16.481***
통제	성별(남)		-0.139 (0.011)	-0.181	-12.915***	0.081 (0.014)	0.075	5.830***
	학년		-0.026 (0.007)	-0.112	-3.938***	-0.003 (0.008)	-0.010	-0.388
	학교급	전문계고	-0.042 (0.020)	-0.030	-2.076*	-0.046 (0.026)	-0.023	-1.773
		중학교	-0.102 (0.022)	-0.131	-4.562***	-0.033 (0.028)	-0.030	-1.145
	경제수준		-0.005 (0.008)	-0.008	-0.568	0.046 (0.011)	0.058	4.390***
	학업성적		0.037 (0.007)	0.073	5.056***	0.091 (0.009)	0.129	9.876***
	부학력		0.007 (0.011)	0.011	0.627	0.007 (0.013)	0.008	0.494
	모학력		0.005 (0.011)	0.008	0.468	0.004 (0.014)	0.004	0.285
	지역 규모	읍면지역	0.015 (0.017)	0.014	0.918	-0.032 (0.021)	-0.020	-1.491
		대도시	0.040 (0.011)	0.051	3.482***	-0.007 (0.015)	-0.006	-0.485
상수항			3.086(0.049)		62.398***	0.977(0.084)		11.681***
R ²			.065			.236		
model fits			29.624***			128.387***		
매개효과			간접효과		부트스트랩 표준오차		부트스트랩 신뢰구간	
온오프라인 인권존중 → 인권의식 → 학교생활적응			.0227		.0037		.0209 ~ .0353	

* $p<.05$, ** $p<.01$, *** $p<.001$

5. 성별에 따른 조절된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는 앞서 온오프라인 인권존중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인권의식이 부분 매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중심으로 인권존중이 인권의식을 거치는 과정에서 성별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보이는지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7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 표 5와 같다. 온오프라인 인권존중은 인권의식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beta=.140$, $p<.001$), 인권의식은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정적 영향($\beta=.350$,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오프라인 인권존중과 인권의식의 경로에서 성별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투입한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여($\beta=.058$, $p<.001$), 조절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인권존중경험이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효과의 크기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 5

성별에 따른 조절된 매개효과

구분			1단계(종속변수: 인권의식)			2단계(종속변수: 학교생활적응)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i>t</i>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i>t</i>
			<i>B</i> (SE)	β		<i>B</i> (SE)	β	
독립	온오프라인 인권존중		.087(0.009)	.140	9.835***	.305(0.011)	.350	27.379***
매개	인권의식					.296(0.018)	.211	16.481***
조절	성별(남)(M)		-.139(0.011)	-.180	-12.884***	.081(0.014)	.075	5.830***
상호 작용항	X * M		.022(0.005)	.058	4.153***			
통제	학년		-.026(0.007)	-.113	-3.963***	-.003(0.008)	-.010	-.388
	학교급	전문계고	-.041(0.020)	-.029	-2.041*	-.046(0.026)	-.023	-1.773
		중학교	-.103(0.022)	-.132	-4.610***	-.033(0.028)	-.030	-1.145
	경제수준		-.005(0.008)	-.009	-.628	.046(0.011)	.058	4.390***
	학업성적		.037(0.007)	.074	5.152***	.091(0.009)	.129	9.876***
	부학력		.008(0.011)	.013	.749	.007(0.013)	.008	.494
	모학력		.004(0.011)	.007	.393	.004(0.014)	.004	.285
	지역	읍면지역	.015(0.017)	.013	.903	-.031(0.021)	-.020	-1.491
	규모	대도시	.038(0.011)	.049	3.355***	-.007(0.014)	-.006	-.485
상수항			3.104(0.050)		62.620***	.977(0.084)		11.681***
R ²			.065			.237		
model fits			28.681***			128.397***		

* $p<.05$, ** $p<.01$, *** $p<.001$

또한, 표 5의 2단계에 제시된 성별의 조절효과에 대한 보다 쉬운 이해를 위해 주요변수를 표준화하여 그래프로 표현한 결과가 아래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2에서 X축은 온오프라인 인권존중 수준을 의미하며, Y축은 인권의식을 뜻한다. 온오프라인 인권존중과 인권의식

은 정적 관계에 있어 인권존중수준이 높아지면 인권의식의 수준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적 관계는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여자 청소년의 경우 상당히 완만한 반면, 남자 청소년의 경우 여자청소년에 비해 가파름을 알 수 있다. 즉, 온오프라인 인권존중경험이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여자 청소년보다 남자 청소년에게서 더 두드러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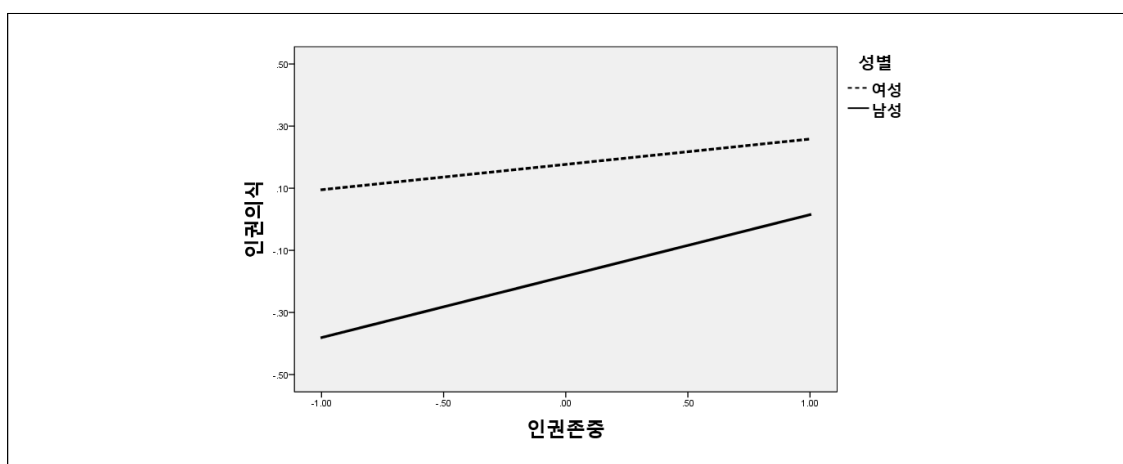


그림 2. 인권존중경험과 인권의식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

그리고 아래 표 6은 성별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이다. 그 결과 남성이 여성에 비해 조절된 매개효과 계수의 값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트스트래핑을 통한 검증에서 신뢰구간 내 0을 포함하지 않아 조절된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청소년의 경우가 인권존중경험에 대한 인권의식의 경로에서 여자청소년의 경우보다 효과가 큼을 알 수 있다. 또한, 성별 조건부 매개효과 간 조절된 매개지수는 여성의 경우 .0506 ($CI=.0024\sim.0077$), 남성의 경우 .1227($CI=.0100\sim.0144$)으로 모두 신뢰구간(CI)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온오프라인 인권존중경험이 인권의식을 매개로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경로에서 성별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

표 6

성별에 따른 조건부 매개효과 검증

매개효과	성별	간접효과	부트스트랩 표준오차	부트스트랩 신뢰구간
온오프라인 인권존중 → 인권의식 → 학교생활적응	여성	0.014	0.0035	0.0074 ~ 0.0215
	남성	0.034	0.0051	0.0245 ~ 0.0446
구분(조절변인)	조절된 매개지수	표준오차	t	신뢰구간(CI)
여성	0.0506	0.0135	3.7556	0.024 ~ 0.077
남성	0.1227	0.0112	11.0001	0.100 ~ 0.144

* $p<.05$, ** $p<.01$, *** $p<.001$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의 인권존중경험이 인권의식을 매개로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경로에서 성별에 의한 조절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2019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의 중고등학생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성별에 의한 조절된 매개효과를 살펴보았으며 본 연구의 주요 결과 및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온오프라인의 인권존중경험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주변으로부터 인권을 존중받은 경험이 많은 청소년일수록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인권존중과 같은 인권관련 경험이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민주 외(2018)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하며 청소년이 인권을 존중받는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청소년의 적응과정에 중요함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통해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마련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스스로 인식하는 인권존중의 주관적 인식의 중요성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인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이는 청소년을 둘러싼 일상의 환경으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는데, 특히 청소년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 성인들인 부모와 교사에 대한 아동인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온라인에서의 권리보장이 그동안 사이버 범죄나 게임중독과 같은 위협요인으로부터의 보호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한계(장민영, 2020)를 극복하고, 아동인권 캠페인 혹은 정보전달을 중심으로 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와 관련해 핀란드에서는 청소년이 게임이나 투표와 같은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인권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인권이 존중받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OPH, 2017). 이처럼 국내에서도 청소년의 활발한 온라인 활동을 고려해 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의 개발이 촉진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권리의 보장을 통해 인권이 존중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둘째, 인권존중경험이 인권의식을 부분 매개하여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온오프라인에서의 인권존중경험은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권의식을 통해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인권존중경험이 청소년의 인권의식을 높인다고 보고한 정상우(2013)와 현안나(2016)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는 충분한 인권존중이 이루어져 있지 못 할 때 이를 보완하는 요인으로 인권의식의 증진을 통해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권존중경험, 인권의식 그리고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기존에 가정과 학교라는

오프라인 영역만을 다룬 연구(이민주 외, 2019; 현안나, 2016)의 한계를 보완하고 두 영역 영향력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권존중환경과 인권의식 발달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청소년의 바람직한 학교생활적응을 위해서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있어야 한다. 인권교육은 인권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학습자로 생활하고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인권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다(UNESCO, 2012-12-21). 특히, 인권교육이 얼마나 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 청소년들이 어떻게 인식하며 만족하는지가 인권교육의 효과성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쌍철, 2019)으로 인권이 존중되는 환경을 기반으로 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 또한, 최근 학교현장에서의 인권교육이 형식주의, 반쪽자리 교육 등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담당 교사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김자영, 이로미, 김진희, 2019)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확장과 함께 인권교육의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온라인 영역에서의 개입은 그동안 지역적인 한계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던 다양한 자원이 인터넷상의 가상공간을 매개로 비수도권 그리고 소외되어 있던 계층까지 닿을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21). 온라인에서의 참여환경 구축은 기존 오프라인 환경에서의 한계를 보완함과 동시에 온라인 고유의 소통방식을 활용하고,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일상에서 인권존중의 개념을 익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온오프라인 인권존중경험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성별에 의해 조절된 인권의식의 매개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여자청소년이 인권의식의 수준은 더 높으나 남자청소년의 효과크기가 여자청소년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에 따라 경험하는 인권경험이 달라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2021년 국가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20대, 30대의 청년세대의 인권의식과 그들이 체감하는 인권수준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고 보고하면서, 이러한 차이는 성별에 따라 체감하는 인권 수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또한 동일 조사에서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인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응답한 청년 남성의 비율이 82.3%로 전체 집단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도 추가적으로 성별에 따른 인권존중수준을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에 비해 통계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t=5.13, p<.001$). 이를 기반으로 청소년기 성별에 따른 관계를 추측했을 때 조절된 매개효과가 여성보다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남성이 여성보다 인권존중수준을 높게 인식하여, 매개효과 모형에서 더 큰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성별을 고려한 인권존중환경, 인권의식, 학교생활적응에의 개입 방안과 관련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청소년 세대에도 성별에 따른 인권의식 접근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모든 청소년에게 인권의식 수준 자체를 향상시키기 위해 인권존중을 기반으로 한 교육을 제공하되, 성별에 따라 경험할 수 있는 인권침해 상황을 제시하여 인권에 대한 개념을 전달하고,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 및 바람직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한 개념으로 최근에는 반차별 교육의 가치관이 제시되는데,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더 나아가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을 당사자들이 바꾸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진보된 인권의식의 형성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온오프라인 인권존중경험이 인권의식을 매개로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경로에서 성별에 의한 조절효과를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인권존중경험이 한 문항으로 측정되어 내용이 타당하고 신뢰할 만한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 2차 데이터를 활용한 한계이기는 하나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인권존중경험에 대한 타당한 측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근거로 보다 심화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 구슬이, 정익중 (2021).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분석을 통해 본 학교 내 아동·청소년 인권. **아동과 권리**, 25(4), 531-559. doi:10.21459/kccr.2021.25.4.531
- 구신실, 박재국, 김민경 (2018). 장애아동·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인권평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구 중복·지체부자유아교육)**, 61(4), 1-18. doi:10.20971/kcpmd.2018.61.4.1
- 구정화 (2016). 일상의 인권경험이 초등학생의 인권인식에 미치는 영향. **시민교육연구**, 48(3), 1-25. doi:10.35557/trce.48.3.201609.001
- 국가인권위원회 (2021). **온라인 세계를 탐험하는 인권교육가를 위한 안내서**. 서울: 인터프로 인디고
- 김경하 (2017). 부모의 방임 및 학대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4), 413-423. doi:10.5392/JKCA.2017.17.04.413
- 김기순, 신선순 (2011). 청소년이 지각한 스트레스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교육종합연구**, 9(3), 94-111. UCI:G704-SER000010453.2011.9.3.005
- 김상미, 남진열 (2014). 후기청소년의 생활양식과 인권의식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6(4), 173-193. UCI:G704-002137.2014.16.4.009
- 김성현, 백현옥 (2021).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훈련이 중학생의 또래관계기술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학부모연구**, 8(3), 21-37. doi:10.56034/kjpg.2021.8.4.65
- 김영신, 박가나 (2014). 친인권적 교실 문화 경험이 중학생의 인권 태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 교육연구**, 21(3), 85-100. UCI:G704-001479.2014.21.3.003
- 김영춘, 정민숙 (2012). 부모양육태도, 사회적 관계,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 23, 51-70. UCI:G704-SER000009000.2012.23..011
- 김원희, 이동훈 (2010).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갈등 및 자기 통제력이 학교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1(4), 1767-1782. doi:10.15703/kjc.11.4.201012.1767
- 김자영, 이로미, 김진희 (2019). 학교 인권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질적 탐색. **법교육연구**, 14(2), 63-92. doi:10.29175/klrea.14.2.201908.63
- 김자영 (2011). 청소년 인권의식의 형성 및 유형화에 관한 연구. **법교육연구**, 6(2), 57-83. doi:10.29175/klrea.6.2.201112.57
- 김준범, 이진석 (2020). 청소년 인권존중 경험과 교육이 차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64, 127-152. doi:10.17997/SWRY.64.1.5
- 김현경, 김신영 (2015). 인권친화적 학교문화가 청소년의 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 **시민교육연구**, 47(2), 29-52. doi:10.35557/trce.47.2.201506.002

- 김현주, 홍상환 (2015).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초등교육**, 26(1), 413-429. doi:10.20972/kjee.26.1.201503.413
- 김현주 (2022). **학생의 시민의식 변화궤적과 영향요인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매일경제 (2022.04.03). **2030 남녀, 인권의식 온도차...‘여성인권’ 두고 간극 가장 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4/297725>에서 2022년 8월 1일 인출.
- 문은식, 김충희 (2002).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심리적 변인들의 구조적 분석. **교육심리연구**, 16(2), 219-241. UCI:G704-000199.2002.16.2.009
- 문은식 (2003). 청소년의 애착안정성과 학교생활 적응행동의 관계. **교육학연구**, 41(3), 349-369. UCI:G704-000614.2003.41.3.016
- 박봉규 (2011). 인권 교육의 방향 탐색: 부모의 양육태도와 고등학생 인권의식 관계분석. **미국헌법연구**, 22(3), 91-126. UCI:G704-000199.2002.16.2.009
- 박종효 (2013). 학교 환경과 학교 적응의 구조적 관계 탐색. **열린교육연구**, 21(1), 101-128. UCI:G704-001282.2013.21.1.011
- 박환보 (2021). 학생인권조례 시행이 학교의 인권환경 조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31(1), 31-57. doi:10.32465/ksocio.2021.31.1.002
- 서울특별시 (2019). **제3기 어린이청소년인권종합계획(2020~2022)**. 서울.
- 선미숙 (2017). **초·중등학생의 학교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요인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송진영, 박민자 (2015). 부모의 학대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43, 57-84. doi:10.17854/ffyc.2015.07.43.57
- 송혁, 황동진, 김사현 (2015). 인권교육이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2(10), 77-100. UCI:G704-000387.2015.22.10.008
- 오세현, 김담이 (2022). 지역아동센터의 권리 보장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인권의식과 공동체 의식의 이중 매개효과. **아동과 권리**, 26, 37-57. doi:10.21459/kccr.2022.26.1.37
- 유성렬, 김신영 (2013).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Ⅲ 데이터분석보고서: 청소년의 인권 의식과 태도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13-R13-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유지희, 엄명용 (2020). 청소년의 사이버불링(Cyberbullying) 피해경험 정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교적응의 매개효과: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69(1), 111-141. doi:10.24300/jkscw.2020.3.69.1.111
- 은지용 (2002). 청소년 문화 연구의 대안적 접근 - 문화정치학을 중심으로 -. **시민교육연구**, 34(2), 149-176. UCI: G704-000543.2002.34.2.011

- 이명순, 김중운(2014). 아동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공감능력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2(1), 335-356. doi:10.35151/kyci.2014.22.1.014
- 이민주, 정익중, 양옥경, 배은경 (2018). 아동청소년의 인권관련 경험이 학교생활적응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 42, 263-286. doi:10.20993/jSSW.42.12
- 이쌍철 (2019). **초·중등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 (RR2019-04). 진천: 한국교육개발원.
- 이윤주, 정상우 (2018). 청소년 정치참여의 소통 플랫폼으로서 청소년의회 고찰: 청소년의회 조례 분석과 평가를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4(4), 539-566. doi:10.24159/joec.2018.24.4.539
- 이정은, 조미형 (2007). 남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8(3), 79-102. UCI:G704-001385.2007.18.3.002
- 이진선, 강영숙, 오종철, 박시균 (2019).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이 인권의식의 매개로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공공정책연구**, 36(2), 391-412. doi:10.33471/ILA.36.2.16
- 장민영 (2020, August 19). **온택트 시대에 있어서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법적 과제**. Retrieved May 14, 2022, from <https://edpolicy.kedi.re.kr/frt/boardView.do?strCurMenuId=10103&nTbBoardArticleSeq=827410>
- 전병규, 오주리 (2015). 아동이 지각한 부모간 갈등이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정서지능의 중재 효과를 중심으로. **정서·행동장애연구**, 31(2), 571-589. UCI:G704-000501.2015.31.2.023
- 전혜숙 (2021). 인권의식이 청소년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 부모의 학대, 학교폭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54, 53-77. doi:10.20993/jSSW.54.3
- 정건희 (2009). 청소년자치활동이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 **법과인권교육연구**, 2(3), 1-25. UCI:G704-SER000002674.2009.2.3.004
- 정미영, 문혁준 (2007).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관련 변인 연구. **아동학회지**, 28(5), 37-54. UCI:G704-000080.2007.28.5.009
- 정상우 (2013). 인천지역 중고등학생의 청소년 인권의식에 관한 연구. **법과인권교육연구**, 6(1), 147-169. UCI:G704-000080.2007.28.5.009
- 조효제 (2015). 인권 달성의 근본조건. **민주주의와 인권**, 15(3), 229-273. UCI:G704-001616. 2015.15.3.005
- 차유미, 차성현 (2019). 청소년의 인권존중과 학교적응의 융합적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0(10), 207-214. doi:10.15207/JKCS.2019.10.10.207
- 최영규 (2021). 청소년 인권의식이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 매개 효과. **학습자 중심교과교육연구**, 21(1), 1293-1315. doi:10.22251/jlcci.2021.21.1.1293

- 최형찬 (2011). 인권,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을 보장하는가. **범한철학**, 61, 415-438. UCI: G704-001234.2011.61.2.004
- 현안나 (2016). 친인권적 부모 및 학교 환경이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 및 성별차이. **학교사회복지**, 35, 187-212. UCI:G704-SER000009000.2016.35..001
- 황은희, 강지숙 (2012). 초기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 **스트레스연구**, 20(3), 149-157. UCI: G704-002182.2012.20.3.006
- Amnesty International. (2013). HUMAN RIGHTS FRIENDLY SCHOOLS: Empowering young people to promote human rights. POL 32/009/2013
- Burns, T., F. Gottschalk (eds.) (2020). Education in the Digital Age: Healthy and Happy Children, Educ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 OECD Publishing, Paris, doi:10.1787/1209166aen.
- Dennison, L., Morrison, L., & Conway, G. L. Yardley (2013).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or smartphone applications in supporting health behavior change: qualitative study. *Journal of medical Internet research*, 15(4), e86. doi:10.2196/jmir.2583
- Farmer, P. (2003). *Pathologies of Power: Health, Human Rights, and the New War on the Poor*.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Fivush, R., & Zaman, W. (2014). Gender, subjective perspective, and autobiographical consciousness. The Wiley handbook on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memory, 1, 586-60. Wiley Blackwell. doi:10.1002/9781118597705.ch25
- Griffiths, A.-J., Sharkey, J. D., & Furlong, M. J. (2009).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in schools*. Routledge:Taylor & Francis Group.
- Kosher, H., & Ben-Arieh, A. (2017). What children think about their rights and their well-being: A cross-national comparison.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87(3), 256. doi:10.1037/ort0000222
- Moreno, M. A., Binger, K., Minich, M., Zhao, Q., & Eickhoff, J. (2022). Adolescent digital technology interactions and importance: Associations with depression and well-being.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25(4), 245-249. doi:10.1089/cyber.2021.0294
- OPH. (2017, February 27). Retrieved May 14, 2022, from <http://www.lastensivut.fi/>
- Piaget, J. (1964). Part I: Cognitive Development in Children-Piaget Development and Learning. *Journal of research in science teaching*, 2(3), 176-186. doi:10.1002/tea.3660020306

- Suler, J. (2008). Cybertherapeutic theory and techniques. *Psychological aspects of cyberspace: Theory, research, applications*, 102-128.
- UNESCO. (2012, December 21). Bioethics, youth, human rights-They told us what they think....Retrieved May 14, 2022, from <https://www.unesco.org/en/articles/bioethics-youth-human-rights-they-told-us-what-they-think>
- Wentzel, K. R., & Battle, A. A. (2001). Social relationships and school adjustment. *Adolescence and education: General issues in the education of adolescents, 1*, 99-118.

ABSTRACT

The influence of online and offline respect for human rights on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with the mediating effect of human rights awareness as moderated by gender*

Jeon, Yebin**·Kim, Soongyu***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otential effects of experiences of positive and negative respect for human rights online and offline on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with the mediating effects of adolescents' human rights awareness according to gender. Data from 4,988 participants in 'The Survey on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Children's and Youth's Rights 2019' performed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NYPI) were analyz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reveal that on/offline experience of respecting human rights have direct effects on school adjustment. Second, the mediating effect of human rights awareness was confirm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xperience of respecting human rights and school adjustment. Third, gender also plays a role in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between experience of respecting human rights and school adjustment. Based on the above research results, a number of policy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healthy growth and the development of human rights awareness among adolescents are suggested.

Key Words: adolescents, online and offline respect for human rights, human rights awareness, school adjustment, moderated mediation

* This article is an addition based on the first author's master's thesis from Jeonbuk National University

** Ph.D Student, Dept.of Social Welfare, Jeonbuk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Jeonbuk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